

목포시장 직위상실 '기로'...재판 중 전남 단체장들은?

1·2심 무죄 불구 부인 '징역형 집유'...대법원 상고 전망 선거법 위반 담양·영암 등 내달부터 잇따라 구형·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흥률 목포시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상실 기로에 섰다. 직위 유지 차원에서라도 대법원 상고가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 중인 전남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선고도 순차적

으로 이뤄질 예정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교법 형사1부(박정훈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 토론회에서 특정인의 개입으

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하지만 이날 앞서 자신의 부인이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 시장은 직위상실 기로에 놓였다. 광주교법 형사1부는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3명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되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공범 2명과 공모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범으로 보이는 이들과 수시로 통화했는데, 그 내용은 B씨의 현금 수수와 관련된 것으

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가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더라도,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 부부는 선고 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자도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광주교법 형사1부는 다음 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중인 담양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결심 공판 후 다음 날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 중인 박 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선고가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에서 이뤄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데,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오는 9월28일 광주교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우성희 영암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안재영기자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파이팅 2024 프랑스 파리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광주 북구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물감을 이용해 만든 오리발을 들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남구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특위 구성 '불발'

원 구성 갈등 여진...예결위 31일·윤리특위 9월로 연기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보였던 광주 남구의회가 하반기 첫 임시회를 여는 등 의사일정에 돌입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불발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제35회 임시회가 진행된다. 제2회 하반기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서 남구의회는 올해 상반기 주요업

무실적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와 관련, 오영순 의원은 남호현 의장에 안건 미상정에 대해 질의했고 남의장은 "의견 간 이견으로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재논의를 거쳐 오는 31일

폐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은 오는 9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오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의장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당초 제35회 임시회는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서 하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불발 촬영' 물의가 일어 최종 파행됐다. /주성학기자

조선대 범대위 "이사장 퇴진해야"

교수평의회·총동창회 등 11개 단체 촉구

조선대학교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5일 조선대 본관에서 김이수 이사장 퇴진 촉구대회를 열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퇴진 촉구 선언문을 통해 "김이수 이사장은 권력의 사유화, 학사 개입 등으로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김 이사장은 학칙에 규정된 총장의 병원장 임명권을 무시하고 법인 정관을 개정해 병원장을 임명하려는 과정에서 교수평의회·교원노

동조합 등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 왔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김 이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과 교육부 시위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지난 1888년 옛 경영진이 물러난 이후 임시이사 체제 등이 사진 구성에 진통을 겪다 2020년 7월 37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같은 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7월 4기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다기자

"탐정 고용 배우자 감시는 유죄"

사실 탐정을 고용해 배우자를 감시해달라고 의뢰한 남편이 스톱김처벌법으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현 부장판사는 25일 스톱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실탐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C씨의 직장과 주거지 등을 훑아다니며 스톱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300만원을 주고 A씨에게 감시를 의뢰했다. /안재영기자

폐업 숙박업주 '강도살인' 60대 구속

서부경찰, 범행 후 절도 행각 확인

폐업 숙박업주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6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에 서구양동 소재 한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범행이 적발되자 업주 B(64)씨를 둔기모따려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했는데, 범행 후 그가 숙박업소 내 물품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되면

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또 A씨는 애초에 숙박업소가 폐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버스를 타고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살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학기자

직업훈련 보조금 43억 편취 일당 송치

직업 훈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A씨를 구속, 나머지

4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43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직업 훈련원 직원인 A씨는 전남 지역유타업

체 2곳의 대표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을 주도해 구속됐다. 전남경찰은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